

성래은 한국패션협회장, K-패션 중국 판로 확대 이끈다

- K-패션 쇼룸 르돔, 모드 상하이 2027 S/S 참가, K-패션 브랜드 중국 시장 진출 지원 -

□ 한국패션협회(회장 성래은)는 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) 지원으로 운영하는 K-패션쇼룸 르돔(LEDOME)을 통해 오는 10월 8일(목)부터 12일(월)까지 중국 상하이 크리스탈 브릿지에서 개최되는 패션 트레이드쇼 ‘모드 상하이(MODE SHANGHAI) 2027 S/S’에 참가해 국내 유망 패션 브랜드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참가는 중국 현지 바이어와의 수주 상담을 통해 국내 브랜드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, 중국 유통망 진입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.

| 지난해 바이어 상담 400여 명 · 100건 성과 바탕으로 현지 수요 기반 판로 확대 추진

□ 르돔은 지난해 모드 상하이 2026 S/S에 국내 브랜드 6개사와 참가해 현지 바이어 약 400명과 100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중국 시장 내 K-패션에 대한 관심과 비즈니스 수요를 확인했다.

○ 협회는 지난해 전시 참가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도 유망 브랜드의 현지 바이어 접점을 확대하고, 수주 상담 및 신규 유통 거래처 발굴을 통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.

| 의류 · 신발 · 가방 등 6개 K-패션 브랜드의 현지 바이어 상담 지원

□ 이번 전시에는 ▲가니송(GANISONG, 대표 최가은 · 민송주) ▲디프(diff seoul, 대표 박슬기) ▲딜라잇풀(DELIGHTPOOL, 대표 전행화) ▲밀로 아카이브(Millo Archive, 대표 박준재) ▲야세(YASE, 대표 문지우) ▲프롬웨얼(FROMWHERE, 대표 이영은) 6개 브랜드가 르돔 공동관으로 참가한다.

○ 여성복 · 캐주얼 등 의류 브랜드와 신발 · 가방 브랜드가 함께 참가해 다양한 K-패션 상품을 중국 바이어에게 선보이고, 브랜드별 특성에 맞는 현지 유통 파트너 발굴과 수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.

□ 성래은 한국패션협회장은 “중국은 국내 패션 브랜드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주요 시장”임을 강조하며 유망 브랜드의 전시 참가부터 현지 바이어 발굴, 수주 상담 지원을 통해 K-패션의 중국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겠다.” 라고 밝혔다.

